

기아 챔피언스 필드 삼겹살 파티는 없다

찬성

가족·연인·친구끼리 삼겹살 구워먹으며 관람 그물·펜스 설치해 사고 위험 막으면 돼



반대

직선 타구 자주 날아와 불판 때리면 사고 위험 고기 굽는 냄새에 관중들 항의도 많아

야구장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좌석으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려던 이른바 '바비큐 존'(공식 명칭 타이거즈 가족 석)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그간 팬 서비스 차원에서 '바비큐 존'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밝혀왔지만 KIA 타이거즈가 최근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바비큐 존' 운영은 물 거품이 됐다.

이 소식은 잡한 팬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20일 챔피언스 필드 3루와 외야 사이에 설치된 160석 규모(4인용 테이블 10개·6인용 테이블 20개)의 타이거즈 가족석을 바비큐 존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가족·연인·친구끼리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의 입장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위치 특성상 직선 타구가 자주 날아오는데

구단, 안전상의 이유

'바비큐 존' 폐지 결정

팬들 찬반 논란 팽팽

다. 바비큐 존으로 날아온 공이 뜨겁게 달궈진 불판으로 떨어질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해당 존에 지붕이 설치돼 있지 않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경우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다.

더불어 바비큐 존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문화구장의 경우, 고기를 굽는 냄새 때문에 관중들의 항의가 많은 점도 고려됐다.

현재 KIA 타이거즈는 해당 존을 일

반 가족석처럼 운영할지 아니면, 구어진 삼겹살만을 가져 가서 먹도록 할지 등 여리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하지만, 시는 애초 팬들에게 발표한 계획대로 바비큐 존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상의 문제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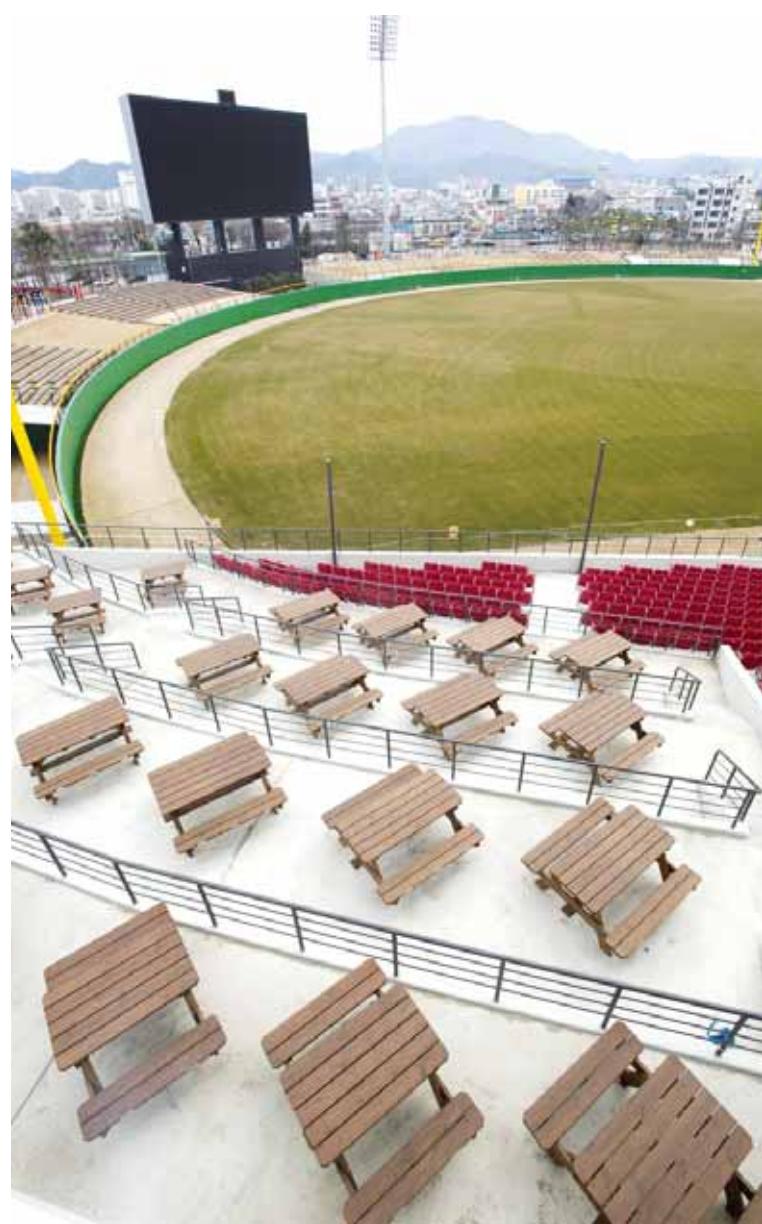
있다면 그물이나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팬들의 입장은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당장 광주 개막경기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야구장에 삼겹살 불판을 쟁여 가려던 팬들은 "야구장에서 친구들끼리 삼겹살 구워먹으면서 응원할 생각에 개막경기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팬들을 우롱한 저자"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바비큐 존 폐지에 찬성 입장인 팬들은 "야구장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바닥에 기름때가 묻을 텐데 야구장을 망칠 셈이니. 냄새는 또 어떻게 할 것이나"며 반겼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바비큐 존 공식 명칭이 타이거즈 가족석인데, 구단에서 바비큐 존을 운영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검토는 해봤으나 결국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KIA 타이거즈는 20일 애초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검토했던 '바비큐 존'을 단순 가족석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챔피언스 필드 3루 쪽 풀대 옆에 설치된 문제의 타이거즈 가족석 구간.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석강에 천연기념물 '호사비오리' 산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발견

멸종위기 '귀이빨대청이'도

서식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영산강 지류인 지석강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철새와 멸종위기에 처한 민물조개가 발견돼 환경단체가 서식지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영산강 지류인 지석강에서 환경부지점 멸종위기종 I급인 귀이빨대청이(<사진 왼쪽>)와 천연기념물 448호인 호사비오리(오른쪽)의 서식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겨울철새인 호사비오리는 세계적으로 1000여 마리가량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제 멸종위기종 조류다. 한 때 국내에서 완전히 사

라졌다가, 최근 들어 철원, 춘천 등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10~20여 마리의 호사비오리가 지석강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민물조개인 귀이빨대청이는 몸길이가 20~25cm에 달하며, 담수 조개류 가운데 가장 큰 종이다. 전남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귀이빨대청이의 서식지역이 생태하천 공사구간 내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감나무 등 무료로 나눠줍니다'

24일 광주시청 야외 음악당서 5그루씩 선착순

광주시는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 푸른광주21협의회, 광주생명의 숲 등과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2014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갖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준다.

무료 배부되는 나무는 감나무(1000그루)·살구나무(1000그루)·초코베리(1000그루) 등 총 5000그루이며, 시민 1명당 감나무 1주, 살구나무 1주, 초코베리 1주, 철쭉 2주 등 총 5그루를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초코베리는 키우기 쉽고 열매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광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나무는 가장 효율적인 탄소 흡수원이다"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등 나무 심고 가꾸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민 날씨 '포근'

나들이 준비하세요

이번 주말 광주·전남 지역은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21일 중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광주 3도, 해남 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다소 쌀쌀하겠지만 오후 들어 9~13도까지 오르며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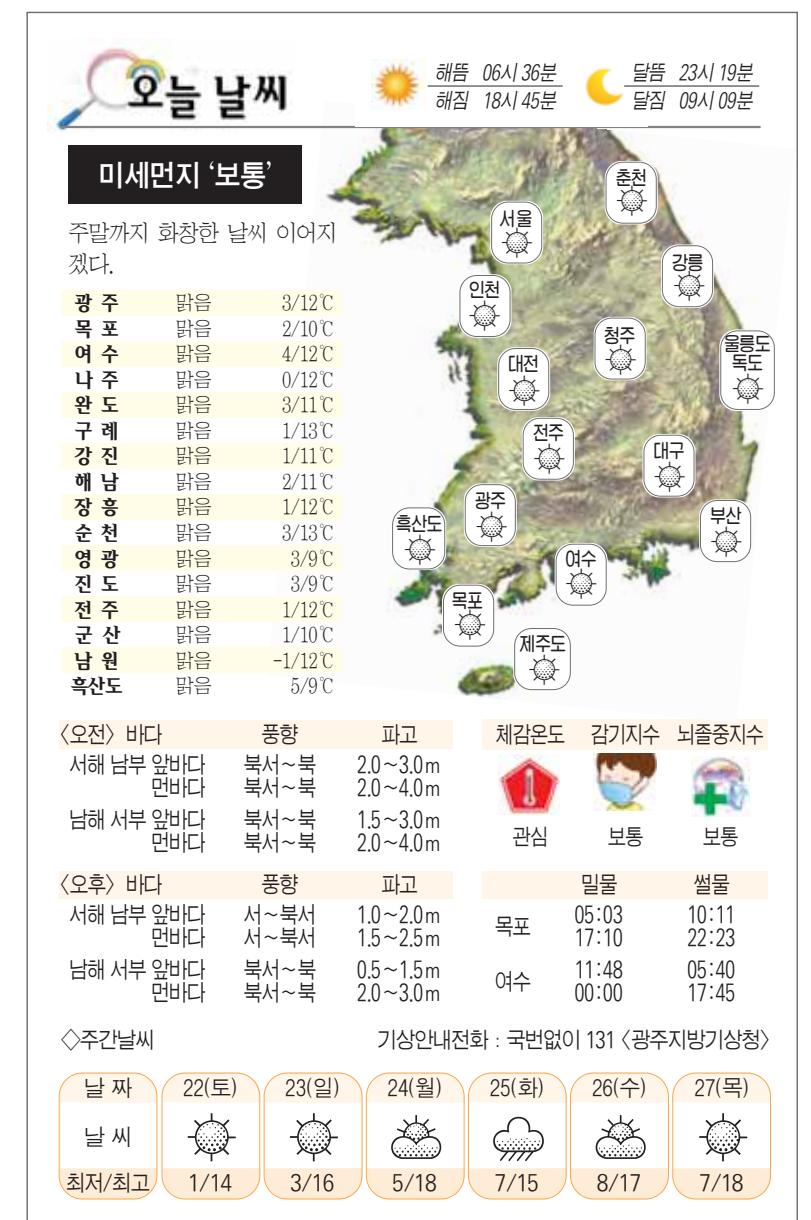
주말인 22일과 23일에도 평년 기온(3~13도) 수준을 유지,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며 기상청은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I 트렉스타 광주 흑석직영점 OPEN 기념 열까지 Big Event!

- Event 1 - 코브라 워킹 구매고객에게 30L 배낭 증정
- Event 2 - 고어텍스 특가 6만원 판매(100벌 한정)
- Event 3 - 경량다운 자켓 5만원(300벌 한정)
- Event 4 - 비행막이 2~3만원(200벌 한정)
- Event 5 - 블 신상품 50~30% 특별할인
- Event 6 - 스틱(2EA) + 배낭(30L) = 99,000원
- Event 7 - 15만원 이상 구매시 카드 무이자 5개월+시운품 제공
- Event 8 - 30만원 이상 구매시 창갈이 교환권 증정
- Event 9 - 50만원 이상 구매시 제주왕복 승선권 2매 증정
- Event 10 -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트렉스타 기념품 제공

▶ 본 행사는 광주 흑석직영점에서만 해당됩니다 ▶ 광주 흑석직영점 연락처 : 062) 956-8338 / 매장 개설상담 : 호남지역 010-4872-6029(권순혁 부정)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www.treksla.co.kr

